

遊娛山水의 觀點에서 본 「彗星歌」

A Study of 「Hye-Sung-Ga(혜성가)」 in point of Yu-O-San-Su(유오산수)

저자 (Authors)	이찬욱, 김정오 Lee Chan-wook, Kim Jung-oh
출처 (Source)	우리문학연구 17 , 2004.12, 331-359 (29 pag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17 , 2004.12, 331-359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문학회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96140
APA Style	이찬욱, 김정오 (2004). 遊娛山水의 觀點에서 본 「彗星歌」. 우리문학연구, 17, 331-3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5 09: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遊娛山水의 觀點에서 본 「彗星歌」

李滌旭* · 金正五**

목 차

- | | |
|-----------------|------------------|
| I. 序 言 | IV. 巡禮의 노래 「彗星歌」 |
| II. 先行研究의 檢討 | 1. 關聯記錄의 檢討 |
| III. 遊娛山水의 意味 | 2. 歌詞 內容 分析 |
| 1. 花郎徒의 組織 및 活動 | V. 結 言 |
| 2. 遊娛山水의 目的 | |

I. 序 言

詩는 인간의 意志와 理想 그리고 情懷와 情緒를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며, 인간이 성취한 정신적 가치들 가운데서 그 중심을 이루는 예술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詩를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精神的 지향과 그 實踐樣式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鄉歌는 鄉札이라는 우리말의 체계로 표기된 최초의 詩歌로서, 三國統一기부터 高麗 中葉까지 존재했던 문학형태이다.¹⁾ 그 중에서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신라시대의 작품인 14수의 鄉歌는 우리 上代文學의 精髓로서 매우 귀중한 유산이며, 새로운 자료

*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金東旭, 『改訂 國文學概說』 普成文化社, 1974, 39면. 이것은 狹義의 鄉歌이고, 廣義의 鄉歌는 중국의 漢詩에 대해 '우리말로 된 노래'라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鄉歌의 문학장르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의 발굴과 새로운 시각에 의한 작품의 해석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國文學의 寶庫라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鄉歌의 文學的인 연구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첫째는 鄉歌를 불교적인 노래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李秉岐,²⁾ 정병욱,³⁾ 金思燁,⁴⁾ 金東旭⁵⁾ 등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향가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둘째는 鄉歌를 呪力(혹은 魔術)을 가진 呪術的인 가요로 보는 것으로서 金烈圭,⁶⁾ 林基中,⁷⁾ 金圓卿⁸⁾ 등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失傳된 것으로 알려진 金大問의 『花郎世紀』 필사본 일부가 1989년에 발견된 후, 1995년에 그 나머지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學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花郎世紀』는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花郎의 시각에서 花郎에 관해 기술한 책으로서, 花郎에 관해서 지금까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및 기타 여러 서적에서 散見되는 부분적인 기록을 통해서 연구되어 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花郎의 실체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國文學界에서도 鄉歌를 花郎道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金學成이 그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鄉歌를 花郎의 思惟世界인 風流道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論著들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⁹⁾

2) 白鐵·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2, 72~73면.

3) 정병욱(2000), 『중보관 한국고전시가론』, 개정판 1쇄, 신구문화사, p.93~97.

4) 金思燁, 『鄉歌의 文學的 研究』, 2刷,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5, 35면.

5)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四版, 乙酉文化社, 1984, 8~32면.

6) 金烈圭·鄭然榮·李在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再版, 西江大學校 出版部, 1981, 13면.

7) 林基中, 「新羅歌謠에 나타난 呪力觀」, 국어국문학회편, 『新羅歌謠研究』, 재관, 백문사, 1994, 290면.

8) 金圓卿, 「鄉歌와 샤머니즘에 대한 考察 - 古代歌謠의 生成과 巫覡信仰을 中心으로 -」, 華鏡古典文學研究會編, 『鄉歌文學研究』, 三刷, 一志社, 1997, 232면.

郷歌를 花郎의 觀點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향가를 불교적인 노래와 주술적인 노래로 파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花郎世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듯한 郷歌의 文學的 연구에 있어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해 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郷歌는 우리의 고유한 사상인 風流道가 기반이 된 우리 고유의 문학으로서 그 位相이 한결 확고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花郎道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는 『花郎世紀』의 기록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기로 하겠으며, 既存 研究의 비판에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立論에 중점을 두기로 하겠다.

Ⅱ. 先行研究의 檢討

『三國遺事』에 전하는 향가 「擘星歌」는 小倉進平의 연구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각도로 解讀과 解釋이 시도되어 그동안 많은 業績들이 蓄積되어 왔다.

「혜성가」의 성격에 대한 시각은 크게 봐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呪術的인 노래로 보는 견해이다. 김열규는 이 노래가 ‘于先 그 效用에 있어 무엇보다도 呪歌’라고 하였으며,⁹⁾ 김승찬은 “혜성가는 직접적으로 星怪即滅, 간접적으로 일본병 韓國의 주술적 효과를 보

9) 金學成, 「筆寫本《花郎世紀》와 郷歌의 새로운 理解」, 省谷論叢 第27輯 1卷, 省谷學術文化財團 1996;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1권 1쇄, 집문당, 1997; 「『화랑세기』所載 향가의 풍월도적 패러다임」, 대동문화연구 36집, 成均館大學校, 2000.

10) 金烈圭, 「郷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郷歌의 語文學的 研究』, 再版 西江大學校出版部, 1981, 17면.

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하였다.¹¹⁾ 윤영옥은 이 노래가 佛敎的 色彩가 加味되기 이전의 土俗的인 星祭와 關係된 것으로 一般祭式의 祝과 같은 性格의 것으로 보았다.¹²⁾

둘째는 佛敎的인 노래로 보는 견해이다. 김동옥은 「혜성가」를 融天師가 아무렇게나 노래부른 것은 아닐 것이며, 「營壇作梵」하여 祈禳하여 부른 노래가 아닐까 하여 불교문학으로 보고 있다.¹³⁾

셋째는 佛敎와 呪術의 習습으로 보는 견해이다. 최성호는 「혜성가」를 '新羅佛敎의 특징인 佛國土說과 護國思想, 그리고 呪術的인 俗信의 習습에서 이루어진 古代歌謠로서, 소박한 宗敎的인 信念, 諸謠的인 歌風, 巧妙한 표현 등으로 일컬어진 優秀한 藝術的인 작품'이라 하였다.¹⁴⁾ 그리고 금기장은 「彗星歌」는 新羅 第26代王 眞平때 融天의 作이라 傳하니 現傳 25首의 鄉歌中 가장 오래된 鄉歌로 생각되며 日怪를 卽滅시킨 月明의 「兜率歌」와 더불어 天地鬼神을 感動시킨 神歌로 손꼽히는 作品이기도 하다. 이 鄉歌는 融天이 倭軍의 侵攻에 의한 國難을 疑慮하는 마음을 歌詞로 읊진 노래이며 一種의 '愛國의 讚歌'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¹⁵⁾

넷째는 花郎道의 노래로 보는 견해이다. 조동일은 「혜성가」를 화랑의 노래로 보고 주술적 사고방식에다 화랑의 기백을 찬양하는 말을 덧붙여 격조 높은 정신에서 우러나는 투지를 느끼게 한다고 했으며,¹⁶⁾ 최철은 용천사가 노래를 부르며 혜성이 곧 사라졌다는 사실을 향가 속에 숨겨진 주술적인 기적으로 해석하나, 이는 향가 속에 담긴 표현 방법과 수사적인 기법으로 먼저 파악해서 읽어내야 마땅하며, 용천사는 세

11) 金承燦, 『韓國上古文學論』, 새문사, 1987, 105면.

12)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93, 19~41면.

13)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1984, 30면.

14) 崔聖鎭, 「彗星歌 研究」, 국어국문학회권(1994), 『新羅歌謠研究』 재관, 백문사, 1963, 381면.

15) 琴基昌, 「「彗星歌」에 對하여」, 한국언어문화 2, 한국언어문화회, 1988, 175면.

16) 趙東日, 『한국문학동사 1』, 제3권 18쇄, 지식산업사, 2003, 159면.

호국의 낭도들에게 국가의 위급을 막아내도록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혜성가」에 나타난 세 분 화당은 결국 애국과 호국의 충신임을 밝힌 것으로 보았다.¹⁷⁾ 박노준은 「혜성가」를 呪歌·治理歌이면서 花郎讚慕歌의 요소도 다소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⁸⁾ 김학성은 ‘종월도의 수행을 위해 금강산에 유람하려던 세 화당의 유오산수를 중단케 한 혜성의 심대성 침범으로 인하여 지어진 「혜성가」 역시 그 작가 용천사(혹은 天師)가 종월도의 사유체계에 기대어 지은 노래임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종래에는 이 노래를 무속의 주술적 가요로 이해하거나 노래 속에 ‘乾達婆’라는 약호가 보인다 하여 불교 특히 잠밀적 사유체계로 이해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⁹⁾

이상의 논의를 보면 鄉歌에 대한 이해는 그 結果와 效用에 중점을 둔 呪術的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향가 作家의 身分과 詩歌에 활용된 詩語를 중심으로 한 佛敎的인 관점으로 나아갔으며, 다시 향가에 표현된 詩的 對象의 身分에 관심을 돌려 花郎道의 입장에서 향가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詩歌가 情緒를 표현하는 문학형태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詩歌를 현실적인 효용성과 思想的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면 詩歌 본연의 예술성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혜성가」에 대해서 김학성이 ‘유오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려 한 것은 작품 분석의 초점을 한 곳으로 모아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花郎道에 관한 초기 연구자의 한 사람인 三品彰英은 일찍이 「讚書婆郎歌」에는 花郎 기파랑이 흰구름을 따라 동해안에 노니는 풍류적 모습이 노래되고 있으며, 그 노래에서 花郎遊娛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17)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초판 4쇄, 새문社, 1998, 267~268면

18) 朴魯煥, 『新羅歌謠의 研究』, 초판 5쇄, 悅話堂, 1996, 104면.

19)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1997, 74면.

따라서 본고에서는 「혜성가」에 대해서 기왕에 행해졌던 논의는 접어 두고, 「遊娛山水」의 관점에서 이 작품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Ⅲ. 遊娛山水의 意味

1. 花郎徒의 組織 및 活動

『花郎世紀』와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花郎徒는 우리 고유의 사상인 風流道와 관련이 되어 神宮을 받들고 하늘을 받드는 제사를 집행하는 조직에서 출발하였으며, 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國勢가 급격하게 팽창하던 당시의 新羅에서 이 조직의 성격이 변하여 국가에 필요한 人材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²¹⁾

花郎徒의 조직은 고위 간부급인 花郎과 중간 간부급인 郎頭 및 하급자인 郎徒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²²⁾ 이 가운데 화랑급을 살펴보면, 眞興王 때 두 사람의 源花를 임명함으로써 시작된 화랑제도는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바뀌고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최초의 변화는 花郎을 보좌하는 副弟의 임명이었다.²³⁾ 副弟는 1세 風月主 때부터 임명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副弟들은 風月主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김춘추는 15세 肅哀王 김유신의 副弟가 되었다

20)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李元浩譯 1권 1쇄, 集文堂, 111면.

21) 花郎世紀 序文에는 '화랑은 仙徒이다. 우리 나라에서 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大祭를 행하는 것은 ... 옛날에 선도는 단지 神 받드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國公들이 무리에 들어간 후 선도는 道義를 서로 힘썼다. 이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깨어났고, 훌륭한 장군과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22) 花郎世紀 參照

23) 花郎世紀 2世 未珍夫

가 18세 중월주가 되었다. 副弟를 때로는 副主 또는 花弟라고도 불렀다.²⁴⁾

그 후 6세 風月主 세종은 眞興王의 명에 따라 2세 風月主 미진부공의 딸로서 王의 총애를 받았던 자기 부인 미실에게 風月主의 지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미실은 源花가 되어 조직을 크게 개편하였다.

美室을 받들어 源花를 삼고 世宗을 上仙, 文弩를 亞仙, 薛原郎과 秘寶郎을 左·右奉事花郎, 美生을 前方奉事花郎으로 삼았다.²⁵⁾

여기서 上仙은 前任 風月主를 가리키고 亞仙은 副弟로 생각이 되며, 그 외에도 3명의 花郎을 임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6명의 花郎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花郎의 역할이 단 순히 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花郎徒의 조직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문노시절이었다.

공(文弩)의 때에 郎徒의 部曲을 두었다. 左右奉事郎을 左右大花郎으로 만들고 前方奉事郎을 前方大花郎으로 만들어서 각기 3부의 낭도를 거느리게 하였다. 또 眞骨花郎, 貴方花郎, 別方花郎, 別門花郎을 두었고 12·3 살의 때어난 眞骨 및 大族의 子弟로서 속하기를 원하는 자로써 이를 삼았다. 左花郎 2인, 右花郎 2인을 두었으며 각기 小花郎 3인, 妙花郎 7인을 거느렸다. 左三部는 道義·文事·武事를 맡았고, 右三部는 玄妙·樂事·藝事를 맡았으며, 前三部는 遊花·祭祀·供事를 맡았다. 이에 制度가 찬연히 갖추어졌다.²⁶⁾

24) 花郎世紀 20世 禮元公.

25) 花郎世紀 7世 薛花郎. 薛花郎은 처음 이름이 薛原郎이었다.

26) 花郎世紀 8世 文弩.

이 조직에 의하면 최소한 50여 명이 같은 시기에 花郎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花郎世紀』에는 眞興王 元年(540)에 지소태후가 화랑제도를 시행한 후부터 神文王 元年(681)에 文武王妃인 慈儀太后가 花郎을 폐지하라고 명령하여 風月主를 國仙으로 바꿀 때까지 140년 동안 재임했던 32명의 風月主에 대한 전기가 실려 있다.²⁷⁾ 그런데 신라 三代의 花郎은 무려 이백여인이나 되었고, 그 芳名美事는 그 전기에 갖춰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²⁸⁾ 아마도 이때의 花郎은 風月主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인용된 것처럼 고위 간부급이었던 花郎들을 모두 指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들은 제각기 맡은 바 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左三部는 道義와 文事 및 武事를 담당했으니, 이는 花郎階徒의 기강유지와 정신교육 및 학문과 행정 그리고 軍事訓練 및 出戰과 관련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右三部는 玄妙와 樂事 및 藝事を 담당했으니, 右三部는 신앙생활과 예능 및 오락과 관련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前三部는 遊花와 祭祀 및 供事を 담당했으니, 이는 남녀교제와 山川神에 대한 제사 및 물자공급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⁹⁾

花郎階徒의 활동은 첫째로 ‘神을 받드는 仙徒’로서의 활동과, 둘째로 ‘國家에 충성하는 人材’로서의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道義를 연마하고(相磨道義), 혹은 서로 歌樂을 즐기면서(相悅歌樂), 山水를 찾아다니며 유람하는데(遊娛山水)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는 데가 없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은 이 두 노선의 花郎階徒가 행했던 활동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며, ‘무리를 모아서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孝悌와 忠信을 가르치려 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과 ‘國公들이 무리에 들어간 후 仙徒는 道義를 서로 힘썼다.’라는 『花郎世紀』의

27) 花郎世紀 32世 信公.

28)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金敏運.

29) 이 기록에서 右三部의 玄妙와 前三部의 遊花는 소속이 뒤바뀐 것 같다. 玄妙는 仙道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祭祀 및 供事와 관련이 되며, 遊花는 제사의 대상으로서 樂事 및 藝事와 관련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은 둘째 노선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道義에 관한 교육이었고, 그 기본 덕목은 孝悌와 忠信이었다. 이러한 道義를 갈고 닦은 인재들은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賢佐忠臣)가 되어 임금을 잘 보좌하고 백성을 잘 보살피며 나라를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중심이 되었으며, 훌륭한 將軍과 용감한 兵卒(良將勇卒)이 되어 주변국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身命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끝내는 삼국통일의 큰 과업을 이루어내는 국가의 干城이 되었던 것이다.

개인적인 情緒의 고양이나 집단의 정신적인 화합을 위해 歌樂을 즐기는 것과, 체력을 단련하고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山水를 찾아다니며 유람을 하는 것은 심신 수련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천의식과 관련된 ‘仙徒로서의 활동’으로도 볼 수가 있다. 『花郎世紀』 서문에 ‘國公들이 무리에 들어간 후 仙徒는 道義를 서로 힘썼다.’라고 하여 유독 道義를 강조하고 歌樂과 遊娛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國公들은 歌樂과 遊娛에는 관심이 적었으며, 현실 정치에 필요한 道義의 연마에 치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相悅歌樂과 遊娛山水는 『花郎世紀』 서문에서 말한 ‘神 받드는 일’과 관련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2. 遊娛山水의 目的

遊娛山水의 문자적인 해석은 ‘山水를 찾아 遊覽을 다니며 놀이를 하고 즐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遊’를 글자 그대로 옮긴 1차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원래 고대인의 ‘놀이’라는 말은 단지 오락적 행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닌, 넓게는 呪術的·宗教的 행위를 의미하고 있었다.³⁰⁾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집회는 산이나 숲속에 신성한 遊娛地를 갖고 있었

30)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128면

으며, 특히 그곳을 神靈이 내려오는 聖域으로 보았고, 입신한 젊은이는 도덕적·종교적·군사적 등의 목적으로 그러한 聖地에 모여 단련을 쌓으며 때로는 그곳을 근거로 해서 각지를 순유했던 것이다.³¹⁾ 따라서 遊娛山水는 첫째로 종교적인 의미와 둘째로 심신단련의 의미, 그리고 셋째로 군사적인 의미 및 넷째로 巡禮나 巡行의 네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遊’는 단순히 ‘놀러 다닌다’는 뜻으로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움’과 연관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孔子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나다니지 말 것이며, 나 다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³²⁾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으로 시작되는 『論語』에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孔子이니만큼, ‘나다닌다’는 것도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遊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元曉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남보다 뛰어나서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 그의 遊方의 始末과 불교를 널리 편 큰 업적들은 『唐僧傳』과 그의 行狀에 자세히 실려 있다.’³³⁾ 하였다. 이때 ‘遊方’은 중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遊覽’도 그냥 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교훈을 얻기 위해 구경하며 다니는 것을 말한다. 景文王의 이름은 膺廉인데, 일찍이 憲安王이 그에게 ‘郎은 國仙이 되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무슨 이상한 일을 보았는가?’하고 물었다. 翁瓘은 이에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자 셋을 보았습니다.’하고 대답했다.³⁴⁾ 翁瓘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31) 三品彰英, 위의 책, 130면.

32) 論語 里仁篇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33) 『三國遺事』卷第4, 義解 第5 元曉不羈 ‘生而穎異 學不從師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狀’.

34) 『三國遺事』卷第2 紀異 第2 景文大王.

놀이만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배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좋게 여긴 憲安王은 용령을 사위로 삼았으며, 그는 憲安王의 뒤를 이어 王位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용령이 나다닌 것을 『三國遺事』에서는 ‘優遊四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三國史記』에서는 ‘遊學有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³⁵⁾ 따라서 ‘遊’를 단순히 즐기기 위해 놀러 다닌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遊娛山水를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은 祖上神이나 天地神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행위가 된다. 이때 주로 찾아간 곳은 三山五岳이었다. 신라에서는 三山五岳과 名山大川에 大中小의 제사를 나누어 지냈는데, 大祀를 지내는 三山은 奈歷(경주)·骨火(永川)·穴禮(경주)였고, 中祀를 지내는 五岳은 동쪽으로는 吐含山(경주), 남쪽으로 地理山(智異山), 서쪽로는 鷓龍山, 북쪽으로는 太伯山(太白山), 中으로는 父岳(또는 公山 : 大邱)이었다. 小祀를 지내는 장소로는 霜岳(金剛山)과 竹旨(豐基)를 포함하여 24곳의 산을 정해 놓고 있었다.³⁶⁾ 이들 중에는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大祀의 三山은 신라의 서울인 金城(慶州)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中祀의 五岳은 金城에서 일정 거리를 연해 있는 요충지이고, 小祀의 諸山은 신라 영토 안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이러한 명산 숭앙에 관해 조동일은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산을 숭앙하는 마음을 문학을 통해 나타내 왔다.’고 하면서, 금강산과 지리산 및 백두산은 특히 중요한 산으로서 찾아가 경배해야 할 신령이 있는 성소이고,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상징물이며, 한 시대의 지표가 되는 거룩한 정신을 얻을 수 있는 수련장이라고 하였다.³⁸⁾

35)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憲安王.

36) 『三國史記』 卷第32, 雜志 第1 祭祀.

3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版 16刷 一潮閣, 195면.

38) 조동일, 「曹植의 시문에 나타난 지리산의 의미」, 南冥선생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南冥선생 탄신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자료집』.

慶州의 南山 일대는 신라의 祖上神과 山川神 및 불교신앙이 함께 존재하는 성스러운 곳으로서, 종교적인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 따라서 『甄萱』이 겨울 11월에 신라 서울로 쳐들어갔다. 이때 王은 妃嬪 宗親들과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즐겁게 놀고 있었으므로(遊鮑石亭宴娛) 적병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다가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³⁹⁾ 기록을 景哀王이 단순히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고를 요하는 사항이다. 우선 '겨울 11월'은 동짓달로서 지금의 12월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추위가 한창이고 물이 얼어 鮑石亭의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花郎世紀』에는 鮑石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문노가 죽자 그의 화상을 鮑石祠에 모셨으며,⁴⁰⁾ 萬呼太后(眞平王의 母)는 딸인 萬龍을 보리공과 결혼시키기 위해 친히 神宮에 가서 公主禮를 고하고 鮑祠에서 吉禮를 행하였다고 한다.⁴¹⁾ 포석사에 畫像을 모신 것은 고려 때의 壁上功臣처럼 국가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길례를 올린 것은 조상에게 결혼을 고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포석사는 祖上神에게 祭祀를 드리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포석정은 포석사의 부속시설로 만든 조형물일 것이다. 따라서 景哀王이 포석정에 간 것은 견훤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을 祖上神에게 고하고 祖上神의 도움을 빌기 위해 祭祀를 드리러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잔치를 벌인 것도 祭祀의 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孝宗郎』이 南山 포석정 혹은 三花處에서 놀고자 하니(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處)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 왔으나 오직 두 사람이 뒤늦게 왔다.⁴²⁾ 기록에서 효종랑이 포석정에 간 것도 祖上神에게 제사를 드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석정이 연회를 위한 장소였다면 그곳

2001, 79면.

39) 『三國史記』卷第12, 新羅本紀 第12 景哀王.

40) 花郎世紀 8世 文穆.

41) 花郎世紀 12世 善利公.

42) 『三國遺事』卷第5 孝善 第9 貧女養母.

은 王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라 신하들이 임의로 출입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놀이를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늦게 온 사실이 기록으로 남길 만큼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遊'는 종교적인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遊娛山水는 花郎徒의 심신단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활동이었다. '金歆運은 어려서 花郎文努의 門에서 놀았다(少遊花郎文努之門)'⁴³⁾ 기록은 김흠운이 文徒로서 격검 등의 武事를 익힌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孝昭王 원년에 大玄 薩湊의 아들 夫禮郎을 國仙으로 삼았는데, 그 낭도가 일천명이나 데었고 安常과는 무척 친했다. 그 이듬해 부레랑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금란에 놀러 갔는데(領徒遊金蘭), 北溟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狄賊에게 사로잡혀 갔다. 문객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대로 돌아왔으나 홀로 안상만이 그를 쫓아갔다.'⁴⁴⁾ 기록에서, 부레랑은 낭도들과 심신수련을 위해 金剛山 일대로 간 것으로 보인다. 金剛山이 小祀를 올리는 24곳의 산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많은 무리를 모두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 그만큼 물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花郎徒에게 있어서 '遊'는 浩然之氣를 기르고 체력을 키우며, 인내심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등의 심신단련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遊娛山水에는 군사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花郎世紀』의 '虎林公은 闕川公·林宗公·述宗公·廉長公·庾信公·寶宗公 등과 더불어 七星友를 이루어 남산에서 만나 놀았다(作七星友 會遊南山). 통일 의 기초가 공 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統一之業 多從公等始焉)'⁴⁵⁾ 기록은 '遊'가 군사작전의 토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3) 『三國史記』 卷第47, 列傳 第7 金歆運.

44)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栢栗寺.

45) 花郎世紀 14世 虎林公.

山水의 지형은 군사작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孫子は兵法을 논하면서 始計篇에서 用間篇에 이르는 총 13편의 내용 가운데 九變篇, 行軍篇, 地形篇, 九地篇 등 4편을 지형의 분석과 이용에 할애하고 있다. 諸葛孔明은 ‘군대운동에는 세 가지 형세가 있으니, 그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세이다. 하늘의 형세는 日月이 淸明하고 별들이 정상운행하며, 彗星이 나타나지 않고 바람과 기운이 순조로운 것을 말한다. 땅의 형세란 험하고 특수한 지형으로서 혹은 石門과 깊은 동굴과 구불구불하고 험한 要衝地이거나, 혹은 험한 산과 찹찹이 싸인 절벽에 큰 길이 천리만큼이나 흐르는 곳을 말한다.’고 하면서, ‘무릇 地勢란 싸움을 돕는 것이니, 싸움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긴 경우는 없었다.’라고⁴⁶⁾ 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花郎徒의 ‘遊娛山水 無遠不至’는 遠近을 막론하고 山水와 친근하게 되므로 지형의 답사와 관찰이 저절로 이루어져 고산준령과 하천유로의 성격과 양상을 거울같이 들여다 보았으며, 그 풍토의 하나인 雨量에 대한 지식도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는 女根谷 富山山城과 萬里關이나 竹嶺 烏嶺 같은 要害地도 개척하였고, 또 釜頂嶺 秋風嶺도 개척하였을 뿐더러, 炭峴을 이용하여 백제의 虛를 찌르게 된 일도 있었다.⁴⁷⁾ 부레랑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北溟의 경계까지 갔다가 결국은 狄賊에게 잡히게 된 것도, 지형과 敵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遊’는 花郎의 순례나 순행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花郎世紀』에 따르면 ‘開國 5年(555)에 (3세 풍월주) 모랑공이 비사벌을 다니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 (지소)태후가 이에 명하여 (이화랑을) 오르게 하여 4세 풍월주로 삼고 郡縣을 순행케 하였

46) 오수형편역, 『제갈량문집 난세를 건너는 법』 2쇄, 문학과 지성사, 1998, 211~224면.

47) 李鳳秀, 「新羅 花郎의 遊娛山水의 地理的 考察」, 常虛 劉錫昶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1970, 165~171면.

다.’는⁴⁸⁾ 기록이 있다. 비사벌은 장녕 지역으로 眞興王의 巡狩碑가 있는 곳이다. 모랑공이 비사벌을 다닌 것은 이 지역을 순행할 목적이었으며, 그의 후임인 이화랑도 郡縣을 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花郎이 천하를 주행하는 것은 後日 官職을 갖고 활동할 때를 대비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지방의 郎政을 돌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遊娛山水는 종교적인 의미와 심신단련의 의미 및 군사적인 의미, 그리고 순례나 순행의 의미를 두루 포함하고 있는 활동으로서, 花郎徒가 평소에 활발하게 수행했던 활동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巡禮의 노래 「彗星歌」

1. 關聯記錄의 檢討

「彗星歌」의 창작 배경을 알려주는 「三國遺事」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5 居烈郎 제6 實處郎(혹은 突處郎이라고도 함), 제7 寶同郎 등 세 花郎의 무리가 楸岳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彗星이 心大星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여행을 중지하려고 했다. 이때에 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괴변은 즉시 사라지고 日本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의 기뻐하여 郎徒들을 보내어 楸岳에서 놀게 했다.⁵⁰⁾

48) 花郎世紀 4세 二花郎 ‘開國五年 毛郎公遊比斯伐 得疾遂卒 … 太后乃命居之以爲四世風月主 使巡郡縣’.

49) 이종욱, 『화랑』, 1권 1쇄, 휴머니스트, 259면.

50)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融天師 彗星歌.

이 기록에는 3명의 花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에도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花郎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⁵¹⁾ 이러한 사실은 이들 花郎이 각각 별도의 무리를 거느리는 독립된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는 견해와 花郎徒의 조직 내에 여러 명의 花郎이 동시에 존재했었다는 견해에 의해 설명될 수가 있는데, 『花郎世紀』의 출현에 의해 이 두 견해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花郎徒가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며, 인망이 높은 사람이 私徒를 거느렸던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 花郎徒의 조직이 확장되면서 複數의 花郎이 등장하는 기록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彗星歌」의 기록에는 마치 花郎에게 서열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각 花郎의 이름 앞에 숫자를 붙여 놓았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문노의 때에 郎徒의 部曲을 두면서 花郎徒의 조직을 前方·左方·右方の 大花郎이 각기 3부의 낭도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左花郎 2인과 右花郎 2인을 두었으며, 그들은 각기 小花郎 3인과 妙花郎 7인을 거느렸다. 이 기록에 따르면 1인의 風月主 밑에 副弟 1명이 있고, 大花郎은 前方·左方·右方に 각 1명씩 합계 3명이 있게 된다. 花郎은 제1, 제2 左花郎과 제1, 제2 右花郎의 4명이며, 이 4인의 花郎 아래에 제1, 제2, 제3 小花郎이 있어서 小花郎은 모두 12명이 된다. 그리고 4인의 花郎 아래에 제1부터 제7까지의 妙花郎이 있어서 합계 28명의 妙花郎이 있게 된다. 따라서 「彗星歌」의 기록에 등장하는 3명은 妙花郎의 직급에 있던 花郎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 三花郎은 어디에 소속된 妙花郎들이었을까? 그것은 이

51)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長春郎·靑郎 '처음에 백제 군사와 黃山에서 싸울 때 長春郎과 靑郎이 陣中에서 죽었다.'

東國輿地勝覽 叢石亭 '신라 述郎·南郎·永郎·安常이 이 곳에서 노닐며 이름하여 四仙峰이라 하였다.'

三品彭英 『新羅花郎의 研究』 126면, 新羅 叢石 '선랑·모랑·관랑·충양랑 등 20명이 넘는 남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들이 金剛山을 가려고 했던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들은 道義 · 文事 · 武事를 맡았던 左三部 소속의 花郎들로서 심신수련을 위한 순례의 목적을 가지고 金剛山으로 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右三部는 玄妙 · 樂事 · 藝事를 맡고 있었는데, 三花郎이 구태여 金剛山까지 가서 藝樂을 연습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金剛山에서 藝樂의 공연을 할 예정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右三部 소속은 아니었을 것이다. 前三部는 遊花 · 祭祀 · 供事를 맡고 있었는데, 金剛山도 물론 신라에서 小祀를 지냈던 24곳의 名山大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에 五岳과 三山の 山川神이 더욱 더 중요시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들이 前三部 소속의 花郎들로서 祭祀만을 위해 金剛山을 찾아갔던 것도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이들이 前三部의 花郎徒였다면 彗星이 心大星을 침범했을 때 兪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괴변을 물리쳐 달라고 하늘에 비는 祭祀를 지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前三部의 조직에는 大花郎만 있을 뿐 花郎이나 小花郎, 妙花郎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花郎徒에게 있어 金剛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였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서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할 때면 大臣들은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네 곳의 첫째는 동쪽의 靑松山이요, 둘째는 남쪽의 개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皮田이요, 넷째는 북쪽의 金剛山이었다.’⁵²⁾ 金剛山은 國政의 大事와 관련되는 곳으로 花郎徒에게 인식되어 있던 장소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花郎徒는 즐겨 金剛山을 찾았던 것이며, 叢石亭의 四仙峰 · 金蘭窟 · 三日蒲의 석감 · 四仙亭 · 永郎湖 · 경포대 · 寒松亭 · 월송정 등의 金剛山 주변지가 다 花郎의 遊娛地로 전해지고 있다.⁵³⁾

‘國仙 邀元郎 · 鬢昕郎 · 桂元 · 叔宗郎 등이 金蘭을 유람하는데 은근

52)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2 眞德王.

53) 三品彭英 『新羅花郎의 研究』 114면.

히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이 있었다. 이에 노래 세首를 짓고, 다시 心粥 舍知를 시켜서 공책을 주어 大矩和尚에게 보내어 노래 세首를 짓게 하니 첫째는 玄琴抱曲이요, 둘째는 大道曲이요, 셋째는 問群曲이었다. 대궐에 들어가 王께 아뢰니 王은 기뻐하여 칭찬하고 賞을 주었다. 노래는 알 수가 없다.’는⁵⁴⁾ 기록에서도 金剛山은 임금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을 세우기 위한 장소로 되어 있다. ‘金蘭’이란 周易에 나오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힘은 쇠붙이도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지며, 마음을 함께 하면 그 말이 蘭과 같은 향기를 가진다’는⁵⁵⁾ 유명한 구절에서 유래된 말로서, 花郎徒의 遊娛地로서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花郎遊娛地의 金蘭은 일정 지명이 아닌 遊娛地의 각지에 보통명사처럼 붙여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동해안 일대 각처에 이 지명이 잔존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가 있다.⁵⁶⁾ 따라서 세 花郎이 金剛山에 갔던 것은 心身修練과 더불어 切磋琢磨하는 가운데 花郎徒의 결속성을 다지기 위한 순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歌詞 內容 分析

現代語譯된 「彗星歌」의 歌詞는 다음과 같다.

옛날 東쪽 물가
乾達婆의 눈 城을랑 바라고,
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花郎의 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54)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景文大王.

55) 周易 繫辭上傳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56) 三品彭英 『新羅花郎의 研究』 119면.

달도 갈라 그어 잣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彗星이여 하고 사ړ인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彗星을 함께 하였습니까.⁵⁷⁾

「彗星歌」는 그 語釋이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작품으로서, 그 내용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가 난해한 작품이다. 이 現代語譯에서도 「乾達婆의 눈 城」과 「倭軍의 渡來」, 「햇불 올린 수플」, 「달도 갈라 그어 잣아 들」, 「길 쓸 별」과 「彗星」, 「달의 떠가 버림」과 「이에 어울릴 彗星」 등의 象徴語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그들이 융합하여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굳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자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옛날에 東海에 倭軍이 침입해 왔는데, 이것을 발견한 봉수대에서 햇불을 올렸다. 城에서 바라보자니 이 햇불은 수플 사이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이제 세 花郎이 金剛山으로 떠나려 하는데, 달이 바야흐로 잣아들려 하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때 길을 인도해줄 별을 기대하면서 「彗星이여!」하고 기도하는 (또는 길을 인도해줄 별을 보고서 「彗星이대!」하고 소리친) 사람이 있었다. 이윽고 달이 져버렸다. 혜성도 또한 달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옛날 동쪽 물가」의 「옛날은 彗星의 출현이 倭軍의 침입과 연관되었던 일이 오래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용천사는 그때 일을 알고 있어서 당시에 彗星을 제거하기 위해 불렀던 것과 유사한 노래를 지어 부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용천사는 천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天文現象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천사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과 잘 합하고(和天), 하늘을 밝게 알며(明天), 하늘에 관해 능통한(通

57) 金完錫 『鄉歌釋讀法研究』 初版 第2刷, 서울大學校 出版部, 137면.

天)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彗星을 발견한 사람이 日官이라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연구되어 왔는데,⁵⁸⁾ 굳이 전문적인 日官이 아니더라도 彗星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天體이다. 彗星이 육안으로 보일 때 쪽에는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彗星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彗星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길한 별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彗星은 戰爭, 疾病, 饑饉, 王의 죽음 등의 재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서양에서도 彗星은 언제나 공포와 외경의 눈으로 보여졌으며, 迷信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彗星은 조화로운 우주 속에 부조화를 몰고 왔던 것이다. 옛날에 宇宙는 神의 손으로 만들어진 질서정연하고 변화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彗星은 가끔씩 나타났다. 그것은 당시의 宇宙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彗星의 모양 역시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밝은 별과는 달리 안개 같은 구름에서 긴 꼬리가 빠져나와 있었다. 흰 젓빛의 띠와 같은 彗星의 화염은 밤마다 별과 함께 승천하고 별과 함께 가라앉는다. 눈부신 그러한 彗星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彗星은 災厄의 조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天罰의 조짐이며, 王者의 죽음이나 王國의 崩壞를 예언하는 것이었다.⁵⁹⁾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 ‘彗星은 변화가 많고 크기도 각가지이고 색깔도 다르다. 피와 같이 붉고 무서운 것은 닥쳐올 流血의 징조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루터파의 司敎 안드레아스 세리치우스는 1578년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간의 죄로 만들어진 두꺼운 구름이 神의 面前에서 악취와 공포로 차게 되고, 다시 두꺼워져서 털을

58) 朴魯堧, 『新羅歌謠의 研究』, 85면;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8, 28면.

59) Carl Sagan, 『코스모스 COSMOS』 徐光云譯, 3권, 문화서적, 1981, 129~130면.

늘어뜨린 彗星을 만든다. 그것은 이윽고 至尊하신 神의 분노로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쓰고 있다. 1456년에 핼리 彗星이 나타나자 敎皇 갈크스투스 3세는 그것을 나쁜 예고라고 믿고서 神에게 탄원하는 '惡魔, 터키인, 그리고 彗星으로부터 神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구절을 아베마리아의 노래에 삽입시켰다.⁶⁰⁾

중국에서는 彗星을 雜星 가운데 妖星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妖星은 五行과 五星이 변한 것으로 天地의 惡氣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였으며, 彗星에는 蒼彗, 赤彗, 黃彗, 白彗, 黑彗 등의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⁶¹⁾ 『春秋左氏傳』에 따르면, 彗星은 옛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펼치는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서, 각 제후들이 화재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彗星을 재앙의 조짐으로 인식한 것이다. 『史記』에는 紀元前 516년에 齊의 景公이 彗星의 출현에 두려워하면서 祭祀를 지냄으로써 彗星의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던 이야기가 나온다.⁶²⁾ 그러나 彗星이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이와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彗星은 人間의 罪惡이나 天地의 惡氣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재앙의 조짐이라고 인식되었으며, 그 형태나 색깔이 다양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리고 彗星에 의한 재앙을 방지하거나 물리치기 위해 神에게 탄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祭祀를 지내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彗星歌」는 三花郎이 金剛山으로 遊娛를 떠나려 할 즈음에 나타난 彗星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 근심하고 있을 때 兪천사가 彗星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른 노래인데, 노래에 의한 彗星의 퇴치는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彗星은 사라지고 다시금 평안한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花郎徒는 계획했던 대로 金剛

60) Carl Sagan, 『핼리 혜성 HALLEY COMET』, 나상호譯, 초판, 도서출판, 1985, 35~40면.

61) 靈臺秘苑 '彗星者 五行五星之變 天地惡氣之所生'.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126면에서 재인용.

62) 史記 齊太公世家.

山으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V. 結 言

鄉歌는 우리말의 기록으로 전해오는 우리의 詩歌 가운데 가장 오래 된 문학으로서, 3句6名의 잘 짜여진 형식 속에 우리 선조들의 情緒가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는 국문학의 寶庫이다. 이러한 鄉歌의 전통은 俗謠와 時調로 연결되면서 오늘에 전하고 있다.

鄉歌는 그 향유층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형식도 몇 가지가 병존하여 발전했을 것인데, 가장 발전한 형식이 嗟辭詞惱格을 가진 鄉歌 즉 詞惱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詩歌에 격조가 있다는 것은 그 詩歌 속에 작자의 교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양을 쌓으려면 지식의 습득과 자기 수양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신라시대에는 특히 花郎徒와 佛徒가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교양인이었다. 따라서 花郎徒와 佛徒는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鄉歌를 지었을 것이며, 이들의 작품이 『三代目』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佛徒는 부처를 찬양하는 韓梵을 주로 했을 것이며, 포교의 한 수단으로 鄉歌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격조 높은 鄉歌의 주요한 향유층은 花郎徒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詞惱歌는 花郎徒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다.

花郎徒는 우리의 고유신앙인 風流道와 관련된 仙徒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원래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神宮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었다. 그 후 花郎徒는 신라의 비약적인 국가 발전과 맞물려 인재등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花郎徒는 仙道를 추구하는 무리와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仙徒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진 文藝가

등장하면서 國事를 주로 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花郎徒는 국가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가끔 있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활동이었으며, 평소에는 서로 道義를 연마하고(相磨道義) 혹은 歌樂으로 즐기면서(相悅歌樂) 山水를 찾아다니는(遊娛山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특히 國公들이 무리에 들어간 후로는 道義에 힘을 쏟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어진 宰相과 충성스러운 신하(賢佐忠臣)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전시에 훌륭한 將帥와 용감한 兵士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干城이 되었던 것이다.

花郎徒의 遊娛山水는 단순히 산과 강으로 놀러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신라를 지켜주는 山川神에 대한 제사와 청년집단인 花郎徒의 심신단련 및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순례의 의미까지 지닌 복합적인 활동이었다. 따라서 遊娛를 하는 장소는 단순히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었으며, 신라인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장소였다.

「彗星歌」는 三花郎이 무리를 거느리고 金剛山으로 遊娛를 떠나려 할 때 그 壯途를 편안케 한 노래이다. 즉 彗星이 나타나는 변괴 때문에 遊娛를 중지하려고 했는데, 용천사가 이 노래를 불러 彗星을 물리쳤던 것이다. 彗星의 변괴를 물리친 것에서 이 작품을 呪術的인 노래로 볼 수도 있으나, 風流道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노래는 花郎徒의 심신단련과 金剛山의 관련성을 강조한 유오산수의 노래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鄉歌를 花郎道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와같은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이것도 또한 花郎道라는 하나의 고정된 시각을 통한 해석이기 때문에 鄉歌의 작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쓰는 것을 작자의 몫이라고 했을 때,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學問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허용될 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鄉歌 해석에 있어 花郎道의 입장을 판단 근거로 한 하나의 試圖라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花郎世紀

高惠卿 「『碁星歌』의 詩歌的 性格」,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1990.

琴基昌 「新羅鄉歌의 研究 - 彌千手觀音歌 願往生歌 『碁星歌』 慕竹旨郎歌 怨歌를 中心으로 -」, 圓光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琴基昌 「『碁星歌』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1988.

金東旭 「改訂 國文學概說」, 普成文化社, 1974.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四版, 乙酉文化社, 1984.

金思熾 「鄉歌의 文學的 研究」2刷,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5.

金承燦 「新羅花郎徒와 그 文學世界的 探究」, 論文集 第25輯 人文·社會科學篇, 釜山大學校, 1978.

金承燦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金承燦편저 「鄉歌文學論」四刷, 새문社, 1993.

金烈圭·申東旭편 「三國遺事의 문예적 研究」三刷, 새문社, 1993.

金烈圭·鄭然榮·李在統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再版, 西江大學校 出版部, 1981.

金煥泰 「僧侶郎徒考 - 花郎道와 佛敎와의 關係 - 考察 -」, 佛敎學報 第7輯, 東國大 佛敎文化研究所, 1970.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初版 第12刷,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5.

金圓卿 「鄉歌와 샤머니즘에 대한 考察 - 古代歌謠의 生成과 巫覡信仰을 中心으로 -」, 華鏡古典文學研究會編 「鄉歌文學研究」3刷, 一志社, 1997.

金學成 「筆寫本《花郎世紀》와 鄉歌의 새로운 理解」, 省谷論叢 第27輯 1卷, 省谷學術文化財團, 1996.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1권 1쇄, 집문당, 1997.

김학성 「『화랑세기』所載 향가와 풍월도적 패러다임」, 대동문화연구 36, 成

均館大學校, 2000.

- 閔泳福 「鄉歌를 통해 본 花郎思想 研究 - <특히 仙思想을 中心으로> -」, 論文集 第7輯, 空軍士官學校, 1977.
-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5쇄, 悅話堂, 1996.
- 白鐵 · 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2.
-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李元浩譯 1판 1쇄, 集文堂, 1995.
- 徐廷範 「花郎語攷」,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연구회, 1974.
- 신형식 「新羅史」 제1판 제5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重版, 一潮閣, 1990.
- 오수형편역, 「제갈량문집 난세를 건너는 법」 2쇄, 문학과 지성사, 1998.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8.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重版, 一潮閣, 1997.
- ___ 「新羅社會와 花郎徒 - 身分制社會에서의 靑少年運動 -」, 新羅文化 1,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4.
- ___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段階」, 韓國史學論叢 上, 1994.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版 16刷, 一潮閣, 2002.
- 李道學 「新羅 花郎徒의 起源과 展開過程」, 정신문화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 李鳳秀 「新羅 花郎의 遊娛山水의 地理的 考察」, 常虛 劉錫弼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70.
- 이연숙 「신라인의 달 신앙 - 「혜성가」를 통해 본 화랑 유람의 의미 -」, 한국시가연구 제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 李雄宰 「新羅鄉歌의 社會性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8.
- 이종욱 「신라 화랑도의 활동」, 西江人文論叢 第16輯,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02.
- ___ 「花郎」 1판 1쇄, 휴머니스트, 2003.
- 李鍾學 「新羅花郎 · 軍事史研究」, 서라벌군사연구소, 1995.
- 李昌建 「新羅의 固有信仰과 佛敎 - 《花郎世紀》를 中心으로 -」, 永進專門大學論文集 第13輯, 永進專門大學, 1991.

- 林基中, 「新羅鄉歌에 나타난 呪力觀」, 국어국문학회편, 「新羅歌謠研究」 재관, 백문사, 1994.
- 張在鏞, 「새로 발견된 花郎世紀에서 본 花郎史」, 김정기先生 花甲紀念論叢, 1990.
- 정병욱, 「중보관 한국고전시가론」 개정판 1쇄, 신구문화사, 2000.
- 조동일, 「曹植의 시문에 나타난 지리산의 의미」, 南冥선생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南冥선생 탄신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자료집」, 200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제3권 18쇄, 지식산업사, 2003.
- 趙芝薰, 「新羅歌謠研究論攷」, 「民族文化研究」第1輯,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 崔光植, 「新羅의 神宮 設置에 대한 新考察」, 「한국사연구」 43, 1983.
- 崔東元, 「新羅歌樂攷」, 論文集 15輯, 釜山大學校, 1973.
- 崔三龍, 「古代의 天文思想에 關한 考察 - 國文學 研究를 위한 天文學 -」, 「韓國言語文學」第13輯, 1975.
- 崔聖鎭, 「「棼星歌」研究」, 국어국문학회편, 「新羅歌謠研究」 재관, 백문사, 1963.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4쇄, 새문社, 1998.
- 국어국문학회편, 「新羅歌謠研究」 재관, 백문사, 1994.
- 新羅文化宣揚會編, 「花郎文化의 再照明」, 書景文化社, 1989.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신라화랑 연구」 초판, 고려원, 1992.
-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위음,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5.
- 華鏡古典文學研究會編, 「鄉歌文學研究」 三刷, 一志社, 1997.
- Carl Sagan, 「코스모스 COSMOS」, 徐光云譯 3판, 문화서적, 1981.
- Carl Sagan, 「헬리 혜성 HALLEY COMET」, 나상호譯, 초판, 도서출판, 1985.

이 논문은 2004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4년 11월 2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A Study of 「Hye-Sung-Ga(淸星歌)」 in point of Yu-O-San-Su(유오산수)

Lee, Chan-wook · Kim, Jung-oh

The Hyang-Ga was not only the first written form of poetry through Hyang-Chal which was the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was a form of literature that existed from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Ko-Ku-Ryo, Shilla, and Baek-Jae) till the middle period of Ko-Ryoo. We are left with fourteen Hyang-Ga from the era of Shilla that we can acquire from "Sam-Kuk-Yu-Sa". These fourteen Hyang-Ga are highly important cultural inheritances as the essence of our ancient literature since they portray the sentiments of our ancestors as they were. The traditions of such Hyang-Ga are being passed down to our generation through the form of Sok-Yo of Ko-Ryoo and Shi-Jo of Jo-Sun. Therefore, the Hyang-ga is the treasure-house of the Korean literature that continuous researches on findings of novel information and on new points of views are currently prevalent.

The literary oriented study of Hyang-Ga has been done in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ly, Hyang-Ga has been considered to be some form of buddhist music. For the other perspective of studying Hyang-Ga, it has been considered to be some form of magical or supernatural music. However, ever since the hand-written transcription of "Hwa-Rang-Se-Ki" by Kim Dae Moon that was known to be missing was found in 1989, the academic efforts to approach Hyang-Ga through Hwa-Rang-Do have been increasing quite substantially. The "Hwa-Rang-Se-Ki" is now serving a much more important role as a tool for

the literary study of Hyang-Ga

The origin of Hwa-Rang-Do can be found in "Sun-Do" that was related to our unique religion called Pung-Ryu-Do. Originally, it was formed by a group of people with the purpose of performing religious service for the heaven and of maintaining sacred palaces. However, along wit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Shilla, it began to be used as a mean of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s. Therefore, Hwa-Rang-Do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eople who are in pursuit of Sun-Do and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In the early times, the Sun-Do group formed the mainstream but with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group of Hwa-Rangs who wer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took over, transforming the nature of Hwa-Rang-Do.

We can see some aspects of speculation world of Hwa-Rang-Do through Hyang-Ga. The values of Hwa-Rang-Do were achieved by training themselves with morality, enjoying themselves with musical instruments, and seeking for scenic beauty. Benevolent premier officials and loyal subjects were the main objectives of Hwa-Rang-Do in order for them to realize their values in the real world. Therefore, we should be able to study Hyang-Ga in the above four categories.

Hwa-Rang-Do's seeking for scenic beauty did not simply mean that they were taking trips to mountains and rivers. It was a complex activity in which they perform a religious service to the gods of mountains and rivers as well as they tried to train both bodies and spirits. It also was a somewhat military activity in which they try to reconnoiter the terrain for military purposes. Therefore, the places they visited did not simply have scenic beauty. Hwa-Rang-Do visited places that were believed to be sacred by Shilla people and they were places of strategic importance in terms of the military. "Hye-Sung-Ga" placed the Keum-Kang Mountains where Hwa-Rang-Do often visited to train

their bodies and spirits as its background. There still are numerous places with names related to Hwa-Rang-Do in Keum-Kang Mountain.

Key words : speculation world of Hwa-Rang-Do, Hwa-Rang-Se-Ki, Hae-Sung-Ga, Yu-O-Sam-Su, Hyang-Ga,